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환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전도와 선교는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27일), 선교주일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거듭남의 증거

(요한일서 5:1~5)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연 내 안에 일어났는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거듭남의 확신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마 6:19, 21, 24, 7:22-23)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모래위에 집을 짓고 있다. (마 7:26-27) 자신들의 죄와 죄책감에 관하여 별로 심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거듭남의 역사를 알게 하는 지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기 위함은 아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이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 그 증거, 실체를 찾아보기 위함이다. (마 13:20~22)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때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감점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과는 분명히 다르다. 진정한 신앙고백은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로 3:5) 자기 자신을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영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것이야말로 극에서 극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요일 5:1, 3:9) 말, 행동,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요일 4:18, 5:4) 믿음의 삶인 것이다. 방금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관하여 아는 신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으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만은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고 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죄가 아니라 의의 세계로 옮겨져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싸우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거듭남은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요일 4:7) 이러한 변화가 없

2008년에도 전도와 선교의 불꽃은 더욱 타오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 28:18~20)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선교를 가기 위한 한 방면으로 전도를 하는 분들 때문입니다. '선호권 후지원'의 선교방식에 따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CMTC훈련을 받아야 선교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요건이 1인 전도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온전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한 영혼구원을 위한 간절한 심령보다는 단지 선교를 가야 하니까 다른 교회의 신자를 데리고 나온든지 친인척을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 22:15)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행 8:22)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요 3:5) 보혈로 충만한 새 피조물 (고후 5:17)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1·1·1 전도에 모두 동참하며 매일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와 이제부터 격월(3·5·7월)로 진행 될 CMTC훈련에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단기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전도위원회(제1교육관 404호)와 선교위원회(선교관 4층)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전도와 선교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오십시오. 특히 '요즘 세상은 세상에 전도로 되겠는가?' 라는 망명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면 아무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서서히 나타난다. (요일 3:10) 그러나 이 증거는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다. 갓난 아기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듯이 거듭남 새신자에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대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이 변화를 사도 요한은 믿음의 본질로 말하고 있다. (요일 5:1, 4~5)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신성도 믿는다. 여기에서부터 그의 삶의 태도가 점점 달라진다. 그러나 행동과 태도의 변화는 그가 거듭남 즉시부터 달라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일 3:9)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9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경은 죄를 고백하라고 간절하게 권고하고 있다. 새로 태어남은 분명하게 삶에 변화를 가져다준다.

육적 탄생과 영적 탄생을 비교하여 거듭남의 증거를 살펴보자.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울고, 엄마 젖을 먹고, 움직이며 또한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마찬가지로 거듭남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다. (롬 8:15; 갈 4:5~6)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한다. 순수한 기도야말로 거듭남의 증거다. "선한 것들을 사모하라" (골로 2:2)는 말씀대로 거듭남 사람은 세속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게 된다.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묻기도 한다. 누군가 거듭났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는 잠을 많이 자듯이 거듭남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쉬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보호를 발견하게 된다. 마침내 시편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시 131:2) 신생아의 행동들은 누군가에 의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본능이다. 거듭남의 증거도 마찬가지이다. 영적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배워서 영적 정경에 이르는 일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 영적 삶이야말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진정한 삶이다. 새로 태어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다. 아멘.

CONFESSION OF ISAIAH

⁽¹⁾In the year of King Uzziah's death I saw the Lord sitting on a throne, lofty and exalted, with the train of His robe filling the temple. ⁽²⁾Seraphim stood above Him, each having six wings; with two he covered his face, and with two he covered his feet, and with two he flew.

⁽⁷⁾He touched my mouth with it and said,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and your iniquity is taken away, and your sin is forgiven."

⁽⁸⁾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am I. Send me!" (Isaiah 6:1~8)

Millions and millions of today's Christians live under their own plan, potential, and purpose. Their vision always ends up in failure. Everyone, no matter how sophisticated or busy, who follows their own way of thinking, is disappointed. Their inner being is empty. No matter how active they are or how much struggle is put forth, they receive very little satisfaction. Even those with great material possessions on the outside do not have real enjoyment inside. Why is it that so many people cannot achieve real happiness or find inner peace? The answer is because they are missing the joy of involvement in the greatest work on earth. How can you realize your dream? How can you find true contentment? You need Isaiah's confession. Isaiah was a righteous man whose poor vision was corrected by seeing God for who He is.

Isaiah needed to understand God as He is. Isaiah lived during a wicked period in his nation's history. His people had forsaken the Lord, his king died of leprosy, and his land was filled with rampant immorality. Israel's hope appeared to be gone. As Isaiah cried over this situation in the sanctuary, thinking he was the only good person left in Jerusalem, God came to him in a vision. In this vision, he saw God's glory with his own eyes. He really looked at who God is, and in so doing, he realized that God is all holiness. Prior to this vision, Isaiah did not think about God's holiness, he thought only about other people's sinfulness. Thus, his viewpoint about his situation was clouded. His perceptions were faulty. His understanding of sin was wrong. His understanding of sin was changed when His understanding of God became clear. It must be noted that a changing view of sin does not change God's holiness. God has always been, is now, and will always be holy. The holiness of God is revealed throughout the Bible, especially concerning the cross. At the cross our sins are cleansed and we are made holy. Ephesians 2:14~16 says,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made both groups into one and broke down the barrier of the dividing wall,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enmity, which is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so that in Himself He might make the two into one new man, thus establishing peace, and might reconcile them both in one body to God through the cross, by it having put to death the enmity." The cross of Christ makes us God's children, "So then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are of God's household." (Eph. 2:19) Can you see the holiness of God at the cross? Do you really look at God as He is?

Isaiah needed to understand himself as he is. When he looked at

God as He is, he saw how terrible he was. He confessed, "Woe is me, for I am ruined! Because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v. 5) His first confession of wretchedness came out because he was looking first at God. He saw how really terrible he was inside. Others cannot see what you are like inside, but you know and God knows. Isaiah realized that he was a man of unclean lips living amongst others with unclean lips. How can someone be good in that situation? When have you seen yourself as you really are? Do not make excuses or comparisons. How many times have you stood proud, thinking how great and good you are? Like Isaiah, we need to confess our sin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Do you understand that? Please do not complain or make excuses for yourself. You are not perfect! Kneel at the foot of the cross and confess everything.

Isaiah needed to understand the world as God understands the world. After looking at God and recognizing His holiness, Isaiah saw his own sinfulness. He confessed his sinfulness, and the Lord asked,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saiah responded, "Here am I. Send Me!" (v. 8) God sees a world with poor, dying souls in it, and yet, He loves the world. He sent His Son. God wants to save the lost ones. He has called His people. We need to see the world in the same way God does. We need to look upon those in need of help in the same way God looks upon them. Isaiah finally saw the real picture. His viewpoint was in line with God's viewpoint, which is why he was able to say to God, "Here am I. Send me!" His response launched him on a great adventure. Isaiah's eyes saw his situation with hope, not depression. Instead of giving-up, he was excited about doing God's work. He had real joy and a real vision. Do you have a real vision? Perhaps you need to see God as Isaiah did.

My dear friend, ask God to enable you to see the lost people as He sees them. He is calling you now, how will you respond? What is your confession? When Isaiah realized God's holiness and glory, he also realized his sinfulness. When he realized his sinfulness, he was able to realize God's plan for the world. When he realized God's plan for the world, he was ready to go and to do his part in it. Are you ready to be busy with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Come to the cross. Humble yourself and kneel at the feet of Jesus. Ask Him to enable you to see the world, your neighbor, and yourself through His eyes. He loves you. He loves the world. He wants to send you. It is time to see Him as He is. It is time to get to work. 🙏

다음 주일 설교

이사야의 고백

“웃사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웃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1~8)



김성완 목사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계획, 잠재력, 목표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전은 항상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아무리 정진없이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좇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내적 자아는 비어 있습니다. 매사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재산을 소유하여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내면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꿈을 실현합니까? 어떻게 진정한 만족를 찾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사야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의로운 선지자였지만 기록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 후 자신의 잘못된 사역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났고 왕은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땅에는 광포한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의인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성소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록하심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러한 환상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록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그의 생각을 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나서야 죄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 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록하십니다. 지금도 기록하시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심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특별히 십자가에 걸드라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짐으로써 우리는 기록해집니다. 에베소서 2:14~16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기록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기록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5절) 처음으로 하나님을 뵈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속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점에서 깨끗하다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자신의 실재를 보았습니까? 변명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위대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처럼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하거나 죄를 숨기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시작으로 세상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뵈고 그분의 기록하심을 깨달은 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에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8절) 하나님은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마침내 이사야는 하나님과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해졌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로써 그의 사역은 온종일 가득해졌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 대신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해 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비전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록하심과 영광을 보았을 때 동시에 죄로 가득찬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도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자 가까이 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바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입니다.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1. 16.)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세아 10:12)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을 향해 주님의 용성이 내려진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죄인임에도 고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뒤엎어야 한다. 말만 앞세우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던 모습을 회개하자. 단지 나의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며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자.(호 6:1, 14:1)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를 심자.(호 6:3) 생명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나니。(롬 10:12)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롬 10:13) 지금이 기회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내리실 것이다.(호 10:12)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중언이 되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게 할 수 있다.(마 28:18~20; 행 17:6)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되어야 한다.

무엇이 묵은 땅인가? 묵은 땅은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이며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울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다.(호 1:2)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다.(호 1:6~10) 한 때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었다. 비록 실수를 반복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으며 회개하였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더러운 죄로 가득한 묵은 땅이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교회(계 2:4~5), 거짓선지자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두아라교회(계 2:23~25), 형식적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뿐인 사데교회(계 3:1,3)와 같았다. 참 회개 없는 이스라엘은 묵은 땅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와 나이가 가까워질 때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한다. 묵은 땅이 된다. 항상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산다. 은총의 말씀을 항상 듣고 말씀과 가까이 있음에도 무감각하다. 묵은 땅에는 생명이 없다. 따라서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되어야 한다. 묵은 땅이 기경된 바울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는 자신을 필박하고 죽이려했던 그 곳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행 16:1~2) 복음을 전하다가 배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행 16:25) 옥문이 열려 자유롭게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찬송에 복음을 전하였다.(행 16:31) 이처럼 바울은 은총의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삶을 주장하였다. 한 때는 묵은 땅이었지만 십자가의 은총은 바울을 깨뜨렸고 새롭게 하였다.

묵은 땅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묵은 땅은 근심과 고통의 열매로 가득하다.(마 13:7,22) 우리의 삶이 이같은 열매로 가득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끈은 길을 만들어 주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기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히 12:12~15) 악한 사람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신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화려한 세상을 따르도록 만든다. 결국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뿌리가 말라 앙상한 뼈만 남게 된다. 좋은 열매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말하여도 또 심자기를 놓지 말라.(고전 4:10~13) (사 18:9) 묵은 땅은 게으름뿐이다.(잠 12:27, 22:13, 24:30) 묵은 땅에서 열매는 찾을 수 없다.

어떻게 기경하나?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가? 대답은 단순하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약 1:23; 히 3:15) 말씀이 최고의 생기가 되어서 영원한 절망뿐인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이다.(딤후 3:16~17)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갈 5:24) 핑계와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자.(고전 2:2) 만물의 썩어가는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놓지 말라.(고전 4:10~13)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죄로 굳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10:11)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분명 죄로 묵은 땅이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악한 죄로 인해 썩어들고 썩어있는 묵은 땅이다. 묵은 땅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원한 죽음뿐이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자. 말씀으로 돌아와 묵은 땅을 기경하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복음 안에 서자.(고전 15:1~11) 미련하고 악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고전 1:26~31)에 믿음으로 응답하자. 말씀에서 떠난 전통과 윤리를 만들어 불필요한 다름(마 2:23~3:6)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묵은 땅이 기경되도록 자신을 더 나은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원한다. “내 모든 이데로 주 받아주소서.”(찬 214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①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병환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의 소문은 가버나움에 널리 퍼졌다.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기거하면서 천국복음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flock하였다.(마 2:1~2) 이처럼 예수님 결에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다.(마 1:32~33) 그러나 이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 예수님은 문제를 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뿐이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지붕이 열리면서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한 중풍병자가 네 천국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되자 네 친구들은 모든 비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직접 내려온 것이다.(마 2:3~4) 예수님 결에는 이런 사람들이 속박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친구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선 선포하셨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 2:5)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지붕을 통해서 내려온 일은 놀랄만하다. 그런데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놀랍다. 왜 그런가?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출 34:6~7) 그런데 시골 출신의 청년인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 이에 서기관들은 매우 흥분하였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지 신성 모독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배운 후에는 누가 능히 사하겠나!”(마 2:7)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신성 모독이었다. 신성 모독은 유대인들이 있어 가장 심각한 범죄였다.(레 24:11,23)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2:1-12)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도라”(마 2:8~10)

예수님은 인자이시다.(마 13:26) 이 사실은 구약성경에도 이미 예언하였다.(단 7:13) 그런데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지 않았다.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마 11:28)하며 도전하였다.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였고 사형을 결정하였다.(마 14:64)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해결을 더 원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열광할 뿐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만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한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마 2:11)는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는 치유되었다. 진실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마 12:29)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육신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성육신하셨던 것은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이 놀라운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자. 더 이상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 진심으로 회개하자. 예수께로 나아가 죄 사함을 얻자.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은총의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깨끗한 도구로 사용소서.”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혹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 국도를 4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선교지는 생각보다 너무나 작고 낙후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골마을을 골목골목을 누비며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 경험, 능력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만을 믿고 의지하였다. 예수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복음으로 가득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힘껏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열중한 영혼들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선교는 순조로웠지만 혹시 자만하고 영적으로 방심할까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였다.

다른 마을로 이동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다. 집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들판뿐이었다. 차를 돌리기 위해 좀더 갔더니, 어린 아이들 20여 명이 벌거벗은 채 황토를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물속에 쏘그리고 앉아 우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듯하다. 이때 호기심이 발동하여 속옷만 주워 입고 물러들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교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여섯 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지만 우리의 대장 파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십자가정병이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진실로 믿었기에 오직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았다. 오직 기도하였다. 말씀에 순종하였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식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뿐! "주님, 이번 선교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문연석(안수집사, 16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1일(월) ~ 1월 28일(일)	중동1부 1팀	양한원
1월 21일(월) ~ 1월 28일(일)	중동1부 2팀	박종률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4일(월) ~ 1월 23일(수)	18교구 지역	최홍섭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4일(월) ~ 1월 19일(일)	22교구 8지역	양병진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주님은 늘 앞장서시고 저를 뒤에 두시며 서둘지 말고 늦더라도 천천히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 먼저 우리 팀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크신 사람의 팔을 빌려 저를 비롯한 우리 팀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복음의 내용은 이진 선교 때와 동일했지만 저의 마음만큼은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했습니다. 매순간 온전한 회개와 자기부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도 절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팀원 모두 서로의 헌신과 봉사와 사랑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조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주님 오시기를 앙망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희정(집사, 13교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충성하는 안수집사회



박병석(안수집사회)

2008년 안수집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허영과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는 흠없이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고 고백한 세례 요한처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의 허물을 보지보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진실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직분이 결코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자리임을 명심하고,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함을 흘리며 일하고 순종하는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여 부부가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새벽기도회는 물론이고 지회별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에 합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면서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도들의 모반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정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주 금요일 지회별로 출원 기도원에 올라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 더욱 충성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에 중현동산에 가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더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각 교구의 지역ээр서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한기 선교팀장과 팀원으로서 교회의 선교발전과 계획에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고전 1:18)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생각과 소원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대로 저의 안수집사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각종 능력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겸손히 한 걸음씩 따르며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순종하는 안수집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담도암 수술이 일박했다. 16일 동안의 긴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수술날짜가 결정되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나는 서명을 했다. '생명포기각서'였다. 의사선생님이 질문을 했다. "남편은 왜 오시지 않으셨나요?"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그 때가 마침 탈레반이 우리나라 봉사단을 억류하던 시기여서 의사선생님은 남편을 걱정해주며 나의 상태에 대해 말해 주었다. "당신의 생명은 신께 있습니다. 오직 신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의 잘라내야 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었다. 몸의 25%나 되는 간의 여러 부분을 잘라내야 했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수술이 잘 되어도 상처가 빨리 아물기가 어려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란 의사의 말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정신을 차렸다. 나의 등을 끌어 주시며 기도 드리는 어느 권사님의 소리에 살포시 정신이 들었다. 부작용이 우려되어 진통제를 투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간의 긴 잠은 수술 후의 고통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표였다.

병실에서 양 옆구리에 공주마녀를 3개씩 달고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진통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만 말씀을 암송하면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수술 후에도 열려했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담당의사조차 놀라워했다. 기적 같은 상황을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보면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왔다. 또 그 같은 고통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특히 10년간 신앙을 버리고 살던 한 환자의 영적 회복과 그녀의 남편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다. 주님은 병실에서도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 받은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는 없지만, 매순간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최계순(권사, 22교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지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은밀히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부르고 계셨다. 어릴 적 친구를 따라 교회에서 놀던 때도, 미션스쿨에 다녔던 여고 때도, 텅 빈 교회기도실에서 기도하던 때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며 '절도하면 되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도, 아이들을 낳고 열심히 세상 공부 시키느라 오히려 보지 않았던 때에도....., 주님과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대로 주님 곁에 다가갔다가,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커서 세상 속에 있어 주님을 늘 멀리하였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친구와 이웃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끊임없이 속삭이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다.

결혼 후 총현교회에서 제2의 신앙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직장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나의 교만한고 모난 마음을 꺾아 한없이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고난 중에 주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있었지만 지난 날을 돌이

켜보면 고난의 순간이 있었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변화된 나와 남편,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있음을 깨닫는다. 아직도 남편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

기를 소망하기에 매일 아침 방송으로 말씀과 찬양을 함께 듣고 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남편도 사랑하시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를 믿는

다. 머지않아 남편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기에 내가 주

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주님과 긴밀히 연

합하도록 하셨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사랑의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용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시며 지켜봐 주

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늘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

소서. 아멘"

김경숙(집사, 15교구)

순수한 믿음

먼저 2008년에도 주님께서 중증1부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좋고 자신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찬양대

원으로 봉사했었지만 찬양대원으로 책임감도 느끼고 게으르게 교회생활

을 했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2006년 1월부터 중증1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어느덧 3년, 난 이제야 주님께서 왜 교사의 사명을 주셨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어린 모습 속에서도 문득문득 보여지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배우는 말씀보다도 훨씬 강하게 내 굳어진 마음을 흔들어 깨워 놓았다.

열 천구와 장난을 치며 재밌어 하는 장난꾸러기들도 찬양할 때에는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아리고 철없게만 보였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모습들을 보며 모태신앙이라는 허물 속에 습관처럼 믿음생활을 했던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아직까지도 나의 삶은 세상을 돌아

하는 부분이 많지만 믿음생활에 있어서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사를 하면서 깨닫고 있다. 2008년 새

해를 맞아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 내가 그들을

통해 깨달았던 순수한 믿음들!

하상현(교사, 중증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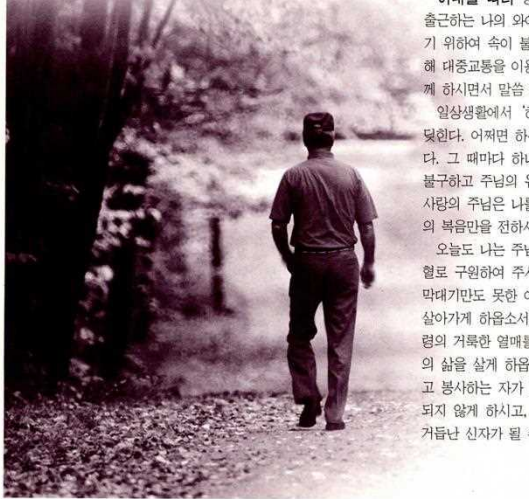
죄인과 동행하신 예수님

내일을 따라 총현교회에 온 지도 어느덧 13년, 이제 내 나이도 50대 후반이 되었다. 새신자 시절에 아내를 출근하는 나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매일 카렌다 성경을 한 장씩 넣어주어 읽었고, 직장생활 자리에서 술을 피하기 위하여 속이 불편하다고 본의 아니게 피부를 부리던 때도 있었다. 그 후 나는 술피곤 같게 성경을 읽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성경말씀을 필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하느냐?'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에 매번 부딪힌다. 어쩌면 하루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혹은 세상의 뜻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의 연속이다. 그 때마다 하나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과 말씀을 찾아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지도 불구하고 주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았던가!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 같은 죄인과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다.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다.

오늘도 나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인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좇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일생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주는 일에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형석(집사, 8교구)



겨울성경학교
2학년 사랑 1반 임수진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
함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알라 나는
네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그럼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나의 높은 상금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생각 할 때 아다 저는 너무나 기뻐여
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알
음을 전하는 수진이가 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겨울 성경학교를 했다. 먼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였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분반공부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초등학교 스카우트 대원들이 밤에 5층까지 올라가서 비밀상자에 손을
넣어보는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만 상자 안에 있는 오
징어를 꺼내왔다고 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니가 겁이 안 나고 용기가 생겼나보다.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용감하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점심을 먹고 풍선으로 강아지 만들기, 성경퀴즈, 미니올림픽을 했다. 그 중에서 미
니올림픽이 제일 재미있었다. 쌀자루에 들어가 공공공 뛰어가 사탕을 먹고 전도할 친
구의 이름도 종이에 적어서 붙여놓았다. 마지막으로 줄다리기를 했는데 우리 십자가
팀이 이겼다. 참 행복한 하루였다.

마주(유년부)



왜 진작에 예수님을 몰랐을까?

불교 가정에서 자라는 저는 친정 오빠의 15년 간의
기도와 결실로 흥현교회에 2007년 9월 26일 저녁, 수요
예배에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9월 30일,
주일예배에 참석해 새신자 등록을 하는 용기를 냈습니
다. 등록과정에서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부끄러움을 금
치 못했습니다. 매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한 뒤 새가족강
육부에서 받는 은혜에 꼭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낯설고 말쑥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지 두 달여 후,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설교 중에 찬송을 부르셨습
니다. "놀라운 사람이 내게 임했네!" 그 찬양에 눈이 번
쩍 뜨이고 귀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게 파고드는 목사님의 간절한 외침에 온 몸이 전
율을 느끼며 눈물이 하염없이 쫓겨 나왔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부끄럽고 죄스러워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25
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성들을 예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몸 담아 업계에서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괜지
하탈하고 공허한 마음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만족도
없고 쓸쓸함으로 가득 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흥분한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 가고 있습니다.
'왜 진작에 예수님을 몰랐을까? 이렇게나 기쁘고 즐거
운데!' 짧은 기간에 예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증거
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침 저녁 기도와 찬
송을 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한 주에 성경
을 20장 이상씩 읽으며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십자가
를 꼭 붙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이런 글을 쓰게 됨도 십자가의 은
혜임을 온 몸으로 느끼며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
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성(성도, 새가족담당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그 옛날 주가 걸으신 (GEOFFREY O'HARA 曲)

이 찬양은 그리스도 구원의 절정인 성금요일(3월 21일)에 우리가 드릴 찬양이다. 종교적이미 합창
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이 곡은 전주부분이 '거룩한 성'의 전주 부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음악적인 표현들과 더불어 감성적인 부분이 처음 시작부터 곡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아주 섬세한 찬양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곡이 그렇듯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정성을 담아야 하겠다.

처음 전주와 노래를 시작하는 4번째 마디부터 '점점 크게'(cresc.)와 '점점 작게'(dim.) 그리고 "그 옛날~"
로 시작하는 가사를 살펴보자.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상상하며 "그 옛날"이 아닌 "그 옛날~"로 찬
양을 해야 한다. 또 6~7마디를 보면 "거룩한"이 아니고 "거루~한"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 이 곳의 시작은 모
두 '작게'(p) 해야 한다. 그리고 10~12마디의 "주 모습 그랬네"에서는 '점점 크게'(cresc.) 노래해야 한다. 이같은
은 악상기호들이 처음부터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른 파트에 비해 음
역법이 많은 테너 파트를 비롯 각 파트의 움직임이 많은 만큼 찬양을 많이 듣고 불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로 오셨다.(빌 2:8)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다. 이것
이 예수님이 2000여년 전에 걸으신 '그 길'이다. 지금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그 길, 나 오늘 걸었네." 아멘.

김원섭(집사, 찬양원원회)

♡ 새가작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17	구미분	25	외선부	장 작(2)	140	김준주	22	청년1부	조영현(15)
118	반달	25	외선부	이희진(8)	141	함영진	18	대학부	박종규(13)
119	정유진	1	청년2부	김영애(1)	142	이혜진	21	청년2부	김준현(21)
120	한성명	18	대학부	한승기(22)	143	이연희	21	청년2부	한준(18)
121	이영재	4	대학부	박지현(23)	144	이영재	7	청년1부	조효성(17)
122	강수석	14	유년부	최수희(25)	145	안병태	19	청년2부	안정현(13)
123	김진호	21	청년1부	김지선(12)	146	박복인	19	청년1부	김종현(11)
124	김정민	19	청년1부	김지선(12)	147	이대성	25	에디터부	박민준(18)
125	송현준	3	청년1부	김정희(16)	148	조영준	20	대학부	김종현(16)
126	한재민	3	청년1부	김정현(24)	149	임옥미	25	에디터부	김순희(16)
127	한성명	21	청년1부	김진호(2)	150	박재민	5	청년1부	
128	배수연	3	청년1부	오숙희(3)	151	한하루	24	외선부	이진규(6)
129	한정민	11	청년1부	김영구(1)	152	박민영	1	청년1부	김욱희(5)
130	손보훈	12	청년1부	은원희(12)	153	김해미	11	대학부	안준모(3)
131	장우재	3	청년1부	이정덕(3)	154	김종현	11	대학부	김정진(3)
132	심희재	23	대학부	박미연(13)	155	조계수	6	대학부	박민지(6)
133	남영진	15	청년1부		156	송현주	22	대학부	이진희(22)
134	김지훈	4	대학부	김정민(4)	157	윤다혜	19	대학부	이정희(13)
135	김지훈	4	대학부	김정민(4)	158	김승희	12	대학부	최 웅(1)
136	한정진	9	대학부	박지민(9)	159	김지현	13	소년부	박효진(13)
137	이기훈	14	중동부	한은숙(23)	160	김정영	13	청년1부	고진호(13)
138	이정화	17	청년1부	이진모(17)	161	박은옥	13	청년1부	황순민(1)
139	이정화	2	청년2부	이정민(24)					

* 흥현교회의 내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0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부록사				
바친기	여국군	안장대	장진호	김익환
9대1부	152부	4대부	32부	32부
장 훈	임덕대	이희식	허종철	안치영
42부	72부	52부	22부	22부
장승진	양재호	이성진	최승규	이재영
152부	62부	62부	32부	32부
이준호	장준호	유수진	황진호	유재진
152부	152부	32부	42부	42부
장영진	장성진	김철규	양성진	유원철
112부	성로부	52부	12부	12부
박정호	김찬수	최승호	최강진	박용환
22부	142부	222부	222부	242부
강준철	이광원	강호영		
92부	교원2개지도	212부		
■ 여전도사				
윤원진	김원식	홍순례	이옥주	김민자
122부	122부	122부	122부	112부
김정현	장덕택	최본식	전은희	김희자
122부	202부	122부	122부	142부
장영진	이옥자	유진희	한성진	임태주
42부	202부	152부	222부	172부
장명비	유미자	이성B	전영희	이혜송
222부	92부	112부	192부	62부
황순란	김정훈			
132부	342부			
■ 전담지휘자 서순진 김원식				
■ 전담목회자 김소연 ■ 전담연주자 장원희 노영진				
■ 선 교 사 송효환				